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편

Jeff Pippenger
2025-12-02

숫자 2

나는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 당시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되풀이될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때에는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제단에서 취한 타는 숯불로 그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을 찬양함에 능변하게 하실 수 있다. 수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어눌한 혀가 풀리고, 소심한 자들은 진리에 담대히 증언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고,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Review and Herald, 1886년 7월 20일.

오순절은 주의 절기로서 생각할 때 유월절, 무교절, 첫 열매의 제물, 그리고 칠칠절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오순절은 기간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시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를 "오순절의 시기"라고 부른다. 그 시기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로 시작되었다. 승천 후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친히 가르치셨고, 이어서 다락방에서 10일을 보내며 일치가 이루어졌다. 9/11을 기점으로,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는 한 기간이 시작되었다. 그 일요일 법령은 오순절의 날로 표상되는 하나의 시점이며, 그 시점에는 9/11에 시작된 한 기간이 앞서 있었다.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오순절의 시기"가 반복된다.

메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기에, 베드로는 '불의 혀들'이라는 기적적인 현상이 술에 취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요엘서의 성취라고 설명했다. '혀'는 메시지의 전달을 상징하고,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 오순절의 메시지는 신성(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과 혀라는 인간적 요소의 결합을 나타낸다. 늦은비의 때에 베드로가 14만 4천을 대표하듯이,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 역시 늦은비가 내리는 바로 그 시점에 제쳐지고 있는 옛 언약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곧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자 무리가 함께 모여, 각 사람이 자기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당황하였다. 그들은 다 놀라며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였다.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각각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는가? 파르티아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또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다 놀라며 당혹해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어떤 이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에 잔뜩 취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아,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가 알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아직 제삼시다." 사도행전 2:4-15.

베드로는 오순절을 요엘서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이 대표되는 예언적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이 청중이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9/11에 온 땅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밝아졌고, 일요일 법령 때 다시 한 번, 14만 4천이 온 세상 앞에 기치로 높이 들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하게 반사할 것이다. 오순절 기간은 9/11에 시작되었고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우리의 품성에 한 점의 흠이나 오점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품성의 결함을 고치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는 부요하고 재물이 늘었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참된 증인의 권고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네가 부요하게 되도록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네가 옷 입도록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또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네 눈에 발라라.' ..."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힘이 없도록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품성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함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품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굳은 결심으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주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깨어 지켜보는, 가장 시험이 많은 처지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위하여, 어둠에서 빛을, 슬픔에서 기쁨을, 곤비함에서 쉼을 이끌어 내시는 것을 언제나 뜻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위대한 준비의 사역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속의 틀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은 하늘의 틀을 받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칙령이 반포되고 인이 찍힐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히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자나 여자의 이마 위에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야망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도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혀를 가졌거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도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인을 받는 모든 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하니—하늘의 후보자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이때에 이 점들에 관하여 간단히만 적을 수 있을 뿐, 다만 준비의 필요성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두렵고도 엄숙함을 깨닫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증언, 제5권, 214, 216.

여기서 화잇 여사는 오순절을 미국의 일요일 법령, 즉 "법령이 공포될 때"와 일치하는 하나의 시점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그녀는 일요일 법령과 오순절을 시점으로 지목하면서도, 준비를 촉구하는 그녀의 기별은 오순절기의 표상으로 일요일 법령에 앞서는 한 기간을 지목한다. 일요일 법령은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며, 9/11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의 기간은 상징적인 "여호와의 준비의 날"로 볼 수 있다. 준비는 시험에 앞선다.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14만 4천에게 내릴 것이다. 오순절기로 표상된 그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가랑비로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2.

그분의 숨은 성령을 전하며, 말의 소리를 나게 하는 것도 숨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분의 숨은 그분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성령을 전한다. 숨은 아담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숨은 죽은 마른 뼈들이 부활하여 이루어진 에스겔의 군대에도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 그 행위는 오순절 날에 내릴 풍성한 비에 앞선 몇 방울과도 같았다." 예언의 영 3권, 243쪽.

오순절 절기의 시작에 그리스도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었지만, 몇몇은 의심했다.

그러나 열둘 중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한복음 2:24, 25.

오순절 시기는 그리스도의 숨과 도마의 의심 논쟁을 시작으로 '시험'의 때를 열었다. 초기의 도마의 논쟁은 오순절 시기 말기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논쟁을 예표한다.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 주셨고, 오순절 시기 끝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과 성령을 세상에 나누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이루신 사역은, 그분이 막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신 동일한 사역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둔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더 멀리 가려 하시는 듯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과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많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았으나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더라. 누가복음 24:15, 16, 25-32.

엠마오에서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두 경우 모두에서 먹는 행위가 등장한다. 이 둘은 함께 오순절 시기의 시작이 성령의 숨결과 또한 먹는 행위로 표지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막 사건들은 믿는 부류와 의심하는 부류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먹는 행위, 성령의 부어 주심, 그리고 성경의 열림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의 예언적 흐름을 취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흐름과 맞추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전달되었다.

9월 11일에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네 바람의 생기가 37장에 나오는 죽은 마른 뼈들 위에 불어왔다. 그때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 준 천사로 예표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제자들이 오순절 기간의 시작에 먹었던 것처럼 먹어야 할 기별을 가지고 강림했다. 도마가 믿기를 주저한 것은 그 기별이 제시될 때 흔들림이 나타난다는 것을 드러낸다.

9/11에 쌍둥이 타워가 무너진 일에 관해 말하자면, 주께서 "열방을 심히 흔들시려고" 일어나셨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흔들림"은 진리의 메시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 일으켜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인 "흔들림"도 있지만, 교회 안의 내적 흔들림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일어난다.

내가 보았던 그 흔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신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불러일으켜진 바른 증언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을 받는 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로 하여금 기치를 높이고 바른 진리를 쏟아내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언을 건디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언이 절반도 귀 기울여지지 않았음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엄숙한 증언은, 전혀 무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져 왔다. 이 증언은 깊은 회개를 일으켜야 하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여 정결하게 될 것이다." 초기 저술, 271쪽.

내부의 "흔들림"은 라오디게아 기별의 제시에 저항하는 이들로 인해 발생한다. 화이트 자매는 존스와 왜그너의 1888년 기별을 라오디게아 기별로 규정한다.

"A. T. 존스와 E. J. 왜거너가 우리에게 전해 준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888 자료, 1053.

라오디게아 기별에 대한 저항은 흔들림을 초래하며, 엘렌 화잇은 1888년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과 연관시킨다.

미네애플리스에서 와그너와 존스 형제들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메시지에 맞서 나타난 반대의 상당 부분은, 선입견을 버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탄은 그 반대를 부추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백성에게서 상당 부분 차단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원수는 그들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던 그 효과적인 역량을 얻지 못하게 막았다.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밝힐 빛은 거부되었고, 우리 형제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 빛은 상당 부분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다. 선택된 메시지, 1권, 235쪽.

오순절 시기 시작에 도마가 품었던 의심은, 오순절 날에 주어진 기별에 대한 반역을 예표하였고, 또한 1888년에 존스와 왜거너가 제시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별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지도부가 일어나 거절했을 때 일어난 흔들림을 예표하였다. 1888년에 요한계시록 18장의 능한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였으나, 그 지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되풀이되었다. 도마, 오순절의 유대인들, 모세 시대의 고라의 반역, 1888년의 반역은 모두 요엘에 따르면 나팔이 불려야 했던 9/11을 예표한다. 그 나팔은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불려졌으며, 그러므로 1888년과 라오디게아를 향한 기별을 예표한다. '옛 길'로 돌아가자고 나팔을 부는 예레미야의 파수꾼은 이사야가 자신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이는 것과 부합한다. 예레미야의 파수꾼은 곧 하박국의 파수꾼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게 될지를 묻는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든 대답할지를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박국 2:1.

"reproved"라는 단어는 "책망하거나 논박하다"라는 뜻이며, 다음 절이 답을 제시하므로 질문을 암시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기되,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하박국 2:2.

밀러주의 역사가 성취될 때 시작된 '논쟁' 또는 흔들림은 윌리엄 밀러의 메시지와 그의 예언 해석 규칙이 개신교 신학자들과 맞서는 대립이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그 논쟁은 1840년 8월 11일, 요한이 받아 먹으라고 한 작은 책을 가지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 밀러주의 메시지가 확증되면서 시작되었다. 하박국의

파수꾼들의 논쟁, 도마의 의심, 1888년의 반역, 고라의 반역, 오순절 때의 술취함에 관한 논쟁 등 모두가 9/11에 시작된 논쟁을 증언한다. 논쟁되고 있는 쟁점은 9/11에 뿌려지기 시작한 늦은 비의 메시지에 관한 것이다.

밀러주의자들이 1843년 도표를 제작하게 한 하박국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대표되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의 형성과 연결된다: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 대 모세, 도마 대 다른 제자들,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제기한 "술에 취했다"는 주장, 1888년 재림운동의 지도부, 1844년 개신교도들 대 밀러주의자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의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9/11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은 일요일 법령 때 있을 충만한 부어주심에 앞서 미리 떨어진 몇 방울과 같았다. 그분은 그 제자들을 예레미야의 옛 길로 되돌아가게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기름부음을 받았던 그곳에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줄 위에 줄'로 펼쳐지는 예언의 기별을 깨닫도록 그들의 깨달음을 여셨다. 9/11에 그리스도의 숨결은 에스겔과 요한의 네 바람에서 온 것이었고,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기별이었는데, 이는 '곧은 증언'으로서 저항을 받을 때 흔들림을 일으킨다. 1888년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예표한다. 거부된 것은 기별만이 아니라,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내던 선택된 파수꾼들도 마찬가지였다.

화이트 자매는 "내가 보았던 요동은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주시는 참 증인의 권면에 의해 불러내어진 곧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다. 1888년의 기별은 바로 그 곧바른 증언이었으며, 1888과 9/11은 모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강림을 가리킨다.

우리의 교회와 기관들에게 바른 증언을 전해야 한다. 잠자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될 때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의 큰 필요를 살펴보자. 주님께서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깊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주는 영향이 없이는 진리는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Review and Herald, 1902년 11월 18일.

9/11에 라오디게아 기별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가 울려 퍼지기 시작함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때 화이트 자매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들과 기관들에게 분명한 증언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기록한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9/11에 강림할 때 시작되었고, 이는 9/11에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지금도 주어지는 기별이 "깨어나라"라는 뜻임을 의미한다. 요엘은 요엘서 1장 5절에서 술에 취한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명령하였다. 9/11은 재림운동을 위한 최종 시험 기간의 도래를 표시하며, 요엘의 깨어나라는 명령을 나타낸다. 오순절기의 시작은 9/11에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어, 일요일법 직전에 열 처녀의 비유가 성취되는 것으로 끝난다.

9/11의 각성은 배도에 빠져 있는 언약 백성의 마지막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다. 일요일 법령 직전의 각성은 이전의 언약 백성에게 문을 닫는다. 시작과 끝은 같으며, 2023년

7월에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2020년 7월 18일의 예언에 대한 반역에 관하여 작성되었다. 가운데 각성은 반역으로 대표되며, 이는 9/11을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에, 2020년 7월 18일을 열세 번째 글자에, 그리고 일요일 법령을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번째이자 마지막 글자에 대응시킨다. 스물두 번째 글자는 그 세 번의 작성 중 마지막에서 완결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주님께서 오순절기의 시작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9/11에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대표하며, 그들은 이후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열렸다. 성령을 받는 일은 식사 중에 일어났는데,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함께한 반역자들은(1888년의 재림주의 지도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드러내며 동시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대표되는 기초적 진리들인 옛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나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흔들림을 일으키는 부류를 대표한다. 나팔은 부흥과 개혁을 모두 촉구한다. 밀러의 예언적 보석들 중 첫째이자 재림주의에 의해 가장 먼저 거절된 그것은 밀러파 운동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밀러파가 선포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끝은 모세의 "일곱 때"로 표시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나, 끝에는 거절되었다. 그 거절로 인해 에스겔은 재림주의를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묘사한다. 이사야 22장에 따르면 1863년부터 미국의 일요일 법령까지의 기간은 환상의 골짜기이지만, 에스겔에 따르면 그것은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이다. 그 두 예언적 골짜기는 요엘의 여호사밧 골짜기와 일치하며, 요엘은 그것을 결정의 골짜기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9/11 당시 요엘서가 어떻게 오순절에 베드로가 지목한 메시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다음 글들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겠다.

(1892년 11월 5일, 남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사랑하는 조카와 조카딸, 프랭크와 해티 [벨든].'에게 쓴 글)

당신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미니애폴리스에서의 그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 까닭 없이 내게 안겨 준 슬픔과 고통과 영혼의 짐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는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과 연합했습니다. 주님께서 존스와 왜거너 두 형제를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당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방종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한 뒤에도,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시지와 그 전달자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미니애폴리스에서 나타난 것만큼 완강한 자기만족과 빛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모임에서

나타난 그 정신을 품었던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들의 교만을 낮추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보내진 진리의 귀함을 분별할 분명한 빛을 다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 주심을 받았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배도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와 같은 정신에 의해 움직였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거부하기로 결심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끌려 그들과 연합할 때까지 그들의 불만과 이탈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약한 자들도 아니고, 무지한 자들도 아니며,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아니었다. 그 반역에는 회중 가운데서 이름난 이백오십 명의 지도자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가? '온 회중이 거룩하며, 그들 각 사람도 그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민수기 16:3].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했을 때, 그들에게 속은 백성은 이 기적에서 여호와와 손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41절]라고 비난하였고, 재앙이 회중에게 임하여 만사천 명이 넘는 이들이 죽었다.

"내가 미니애폴리스를 떠나려 마음먹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되풀이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네게 합당한 자리,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그 자리에 세웠다. 그들은 네 증언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은혜와 능력이 너를 붙들 것이다. 그들이 멸시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내는 사자들과 그 메시지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왜곡하였다. 만일 각 영혼이 이 죄, 곧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이 거룩하지 않은 독립심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둠 속을 걸으리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그들이 내 말씀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벼움과 경박함, 희롱과 농담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을 정하여 나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피워 올린 불꽃 속을 걸으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슬픔 속에 눕게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의무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감히 무시하지 못했다."

배틀크리크에는 맑고 밝은 광선으로 빛이 비쳐 왔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의 집회에서 한몫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빛으로 나아와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보내신 진리의 풍성한 보화를 받아들였는가? 누가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추어 걸어왔는가? 누가 자기들의 잘못된 열심과 눈먼 상태, 시기와 약한 의심, 진리에 대한 거역을 온전히 자백했는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빛을 인정하기를 등한히 한 탓에, 그 빛은 그들을 멀리 뒤에 남겨두었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도 있었고, 받았더라면 신앙 경험에서 굳건한 사람들이 되게 했을 그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취한 입장은 겉보기에 그들을 의심하는 자들,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과 한데 가두어 버린,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 그토록 오랫동안 쌓이고 또 쌓인 증거를 거슬러 온 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분명히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험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받아들이고 어둠의 권세에서 온 것은 거절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길은 겸손히 행하여, 절뚝거리는 자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발을 위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자칭 지혜를 따르며 자기들이 피워낸 불티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냐.

진리에 맞서 일해 온 이들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했던 시간과 정성과 수고는 참으로 막대한 손실이었다. 우리는 영적 지식에서 수년은 더 앞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빛 가운데 걸어야 했던 이들이 주를 더 알아 가려고 계속 따라가 그분의 나아오심이 새벽처럼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진리에 맞서 화강암 벽처럼 버티고 서 온 일꾼들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쏟아야 할 때, 세상은 상대적 어둠 속에 남겨진다.

하나님께서서는 파수꾼들이 일어나 한목소리로 확고한 기별을 선포하여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각자 본분의 자리로 분연히 나아가 그 위대한 사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려 했다. 그러면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다른 천사의 강하고 맑은 빛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우리는 수년이나 뒤쳐져 있다. 그리고 눈먼 채로 서서, 하나님께서 미니애폴리스 회의에서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아가게 하려 하신 바로 그 기별의 전진을 가로막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의 눈멀음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그 일이 어떻게 가로막혀 왔는지 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으며 여러 시간이 흘러갔고; 하늘의 사자들은 지체됨에 애통하며 조급해하는 동안 황금 같은 기회들이 허비되었다. 성령—그 가치와 모든 영혼이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적었다. 하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러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이들에 관하여,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능한 일이 행해질 수 없었다고,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참으로 말할 수 있다.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이유로 존중을 받아 왔고, 그들의 불신은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의 도구를 통해 전하고자 하던 진리의 기별—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의심과 편견을 불러일으켰다." 1888 자료, 1066-1070.